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영어권 복음주의 세계에서는 교파를 막론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 성별 문제와 그에 딸린 모든 주제에 관한 새 책이 나옵니다. 젠더, 트랜스젠더, 결혼, 가정, 낙태, 학대,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 등입니다. 독일에서는 그 빈도가 더 낮습니다. 현재 상태에 편안히 자리를 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은 아마 1년에 세 권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에는 거센 파도가 몇 차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질문들을 세대마다 새롭게 마주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결혼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살 수 있는지 새롭게 이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기준으로 삼으며,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은 남녀의 관계를 대체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담이, 그리고 아담과 함께 모든 남자가 하와와 여자 자체에 대해 더 높고 더 책임이 큰 지도적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복종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전혀 갖지 않거나 아주 적게만 갖습니다. 여자는 설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가르침입니다. 1세기와 2세기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전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바른 가르침이며 바른 삶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가 성경에 대한 충실함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남성 지배가 근본적으로 의문에 부쳐질 때에야 비로소 그때까지 눈에 띄지 않던 사고의 틀이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는 T4G와 가스펠 코얼리션(Gospel Coalition) 같은 비교적 새로운 운동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남침례교(Southern Baptists)가 이 견해를 대변합니다(댄버스 선언, The Danvers Statement). 그루뎀(Grudem), 무어(Moore), 파이퍼(Piper), 슈라이너(Schreiner), 코스텐버거(Köstenberger), 드영(DeYoung), 켈러(Keller), 카슨(Carson), 스톰스(Storms), 맥아더(MacArthur), 스트라우치(Strauch)는 이 견해를 위해 힘쓰는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견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이 견해를 지지하고 가르쳤으며, 앞에서 말한 형제들 대부분과 그들의 주석 작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남녀 문제 때문입니다(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칼뱅주의 때문인데, 이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러 단체와 출판사가 이 지도자들을 따라 이 주장들을 새롭게 다듬어 성경의 진리로 내세우는 것을 자기 소명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몇 곳을 들겠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충실함”은 대부분의 점에서 저도 똑같이 지지하지만, 이 남녀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21, EBTC, 3L 출판사, CLV 출판사, CSV 출판사, CV Dillenburg, Betanien 등, 배타적 형제단과 자유 형제단 모임들, 러시아계 독일인의 색채를 띤 교회들, 부분적으로는 FeG와 EFG 교회들, 그리고 KFG.org에 올라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이 문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의 책 “How God Sees Women: The End of Patriarchy”에서 두 장을 실었습니다. 그는 큰 교회의 목사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호보완주의적 견해, 곧 여성의 위계적 복종을 – 물론 온건한 형태로 – 지지했고 위에서 말한 미국의 형제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고 이 견해를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눈을 밝혀 주는 책, 이 가부장적이고 상호보완주의적인 견해를 그야말로 논박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Hans-Jörg Ronsdorf, 2022년 4월, 2026년 10월 보완

이제 책 전체를 독일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 Wie Gott Frauen sieht. Biblische Perspektiven jenseits von Macht und Tradition(『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권력과 전통을 넘어선 성경적 관점』). Kirche für Alle,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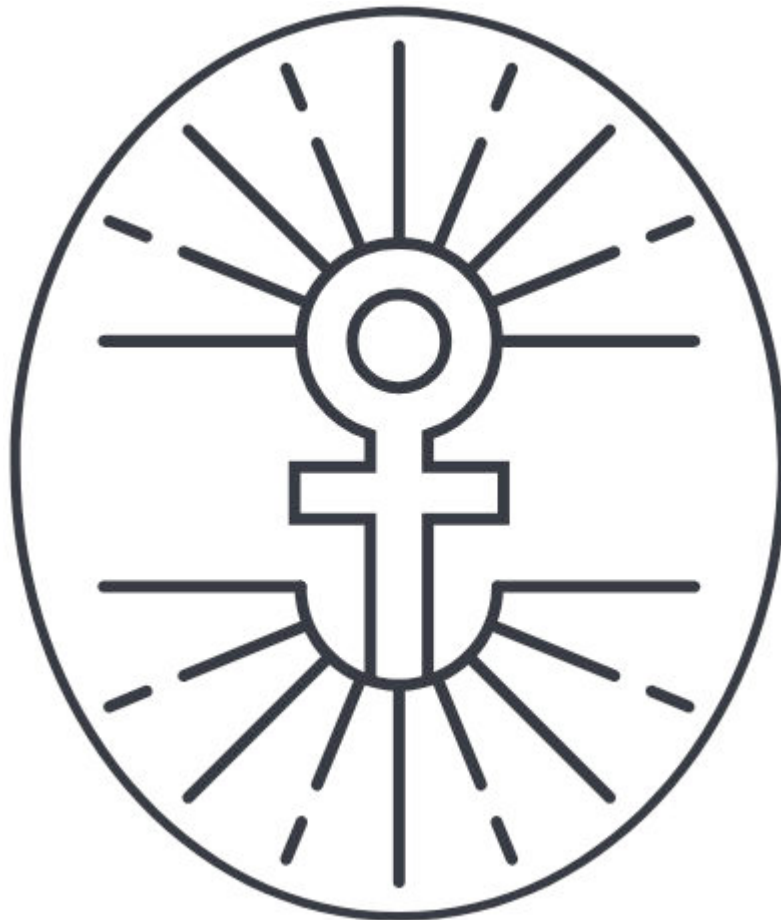
종이책(독일어판), 18.80유로(ISBN 978-3-9826027-8-3): <https://www.amazon.de/dp/3982602785>

Kindle 전자책(독일어판), 9.80유로: <https://www.amazon.de/dp/B0HDPLZJ3C>

책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www.hans-joerg-ronsdorf.de>

다음 두 장, 곧 제8장 「아내들이여, 복종하라」와 제9장 「사람에게 맞추시는 하나님」은 이 독일어판의 본문입니다.

8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부부는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좋을 대로 하는 자율적인 단위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결혼은 피차 복종의 관계다.”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¹

“우리 딸들이 언젠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최근에 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로 딸 아이비(Ivy)에게 언젠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자기 결혼에서 리더십과 복종이라는 주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관해 제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할지 생각해야 하니,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집니다.

일점 상호보완주의

저는 이 장과 다음 장을 위해 자료를 연구하면서야 비로소,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아주 온전한 형태의 권위와 복종마저 포함된다는 생각과 마침내 그리고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읽은 내용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일점 상호보완주의는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남자들을 이끌어도 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일종의 일방적인 복종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² 그런 점에서 결혼과 교회 모두에서 여성의 복종을 요구하는 **이점 상호보완주의**와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와 교회가 일점 상호보완주의를 지지합니다.³

이 책을 읽는 이점 상호보완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설득되어 교회 리더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생각은 버리면서도, 결혼에서는 어떤 형태의 권위와 복종을 여전히 붙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그 입장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을 계속 연구하면서 일점 상호보완주의마저 버리게 되었을 때, 제 결혼 생활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저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상호주의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20년에 이르는 제 결혼 경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끼리의 결혼이 한 사람은 이끌고 다른 사람은 따르는 결혼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설교한 “기독교적” 결혼에 관한 아름다운 구호들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호입니다. “그는 희생하고, 그녀는 순응한다. 그는 이끌고, 그녀는 따른다. 그는 제안하고, 그녀는 지지한다.”⁴

예수님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도적 역할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⁵ 바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장에서 주로 다루는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들입니다(LUT, 독일어 루터 성경에서 번역).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22 아내들아, 주께 하듯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교회를 자기 몸으로 구원하셨느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26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27 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장과 씨름하는 동안 C. S. 루이스(C. S. Lewis)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 입에 파이프를 물고 손에 연필을 쥐 채 어려운 신학 본문을 붙들고 씨름할 때 마음이 저절로 노래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에베소서 5장이 바로 그런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으로 딱 차 있고, 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본문을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그렇게 깊이 씨름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 결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이므로, 저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단락을 “남편은 이끌고 아내는 따른다”는 뜻으로 읽는 것은 제 경험과 문화적 인식에 어긋납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만큼 교육을 받았고 유능한 – 여러 면에서 저보다 더 유능한 –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하고, 지금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니다. 아내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실제적 필요를 저보다 더 잘 헤아립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저보다 사람들의 무리를 더 잘 이끍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사역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제 지도적 역할을 내세우면, 그것은 제게 자의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우리 관계와 아내의 능력을 해치는 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에게 제 리더십을 내놓는 것보다 아내와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 단락과 씨름한 셋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뛰어난 성경 주석가들조차 이 단락이 말하는 바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목사들은 자기 확신을 구체적인 결혼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처음 읽을 때는 말씀이 아주 단순해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은 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집니다. 처음 몇 구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부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피차 복종에 관한 구절로 시작할까요? “머리”는 무슨 뜻일까요? “복종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21절(“서로 복종하라”), 22절(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4절(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각각 같은 뜻일까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질문들을 네 가지 서로 다른 해석, 곧 네 가지 “견해”를 통해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단락의 4분의 3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므로, 저는 각 견해를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따라 정의하겠습니다. 이 네 견해는 남편을 결정권자(견해 1), 최종 결정권자(견해 2), 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사람(견해 3), 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견해 4)로 봅니다.

견해 1: (일상적인) 결정권자로서의 남편

이것은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의 견해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서 5:21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에 대해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라고 씁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에서 “머리”가 “~에 대한 권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끄는 책임을 지우고, 아내들에게는 그 리더십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기도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창세기 2:24를 인용할 때, 그루뎀에 따르면,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지는 권위를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다스렸다는 기록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실제적 결과에 대해, 그루뎀은 자기 결혼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들려줍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결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의견이 갈든 다르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지, 각자가 자기 개인적 책임 영역에서 내리는 개별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남편의 머리 됨이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대략 10년에 한 번쯤만 작용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남편의 머리 됨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의미가 있다. 남편의 머리 됨이 참으로 있다면, 결정 과정의 중심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경우가 많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⁶

존 파이퍼(John Piper)도 이 견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개 결정을 내리던 부모님의 결혼을 다정하게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는 분명히 가정의 머리였다.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가 가족을 경건의 시간에 불러 모으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주일학교와 예배에 데려가셨다.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셨다.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정하셨다.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하워드 존슨스(Howard Johnson's)에 가기로 결정하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하셨다. 아버지가 종업원을 부르셨다. 아버지가 계산을 하셨다. 우리가 가족의 규칙을 어기거나 어머니께 버릇없이 굴면 상대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때가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 아빠가 집에 계실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사랑하셨다. 나중에 나는 성경이 이것을 “복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다.⁷

넬리 워히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책들은 대부분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 ... 마음이 열려 있고 잘 받아들이는 아내는 기꺼이 ... 그의 사랑과 존중과 보호와 부양을 위해 자기 자유를 내려놓는다.”⁸

또 다른 책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자는 집 밖에서는 상사가 많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친절한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자기에게 마땅한 존경을 받을 기회가 있다.”⁹

다른 견해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견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은 제 결혼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견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루템과 파이프가 저와는 다른 삶의 경험을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결정을 전부 또는 대부분 내리는 친밀한 관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부부들은 자라 온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예전의 “전통적인 결혼”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타고난 지도자인 남편과 타고난 추종자인 아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니며, 줄리(Julie)와 제 결혼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견해의 변형된 형태를 내놓은 것이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한 상호보완주의”라고 부르고, 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견해 2: (드문 경우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남편

팀 켈러와 캐시 켈러(Timothy and Kathy Keller)는 베스트셀러 *The Meaning of Marriage*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에서 상호보완주의적 결혼의 더 온전한 형태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 그루템과 달리 – 결혼에서의 성 역할을 21절의 피차 복종의 표현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켈러 부부는 피차 복종을 겸손하게 상대를 섬기고 기쁘게 하기로 하는 결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2:2-3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한다 (로마서 15:1-3).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douloi*”(갈라디아서 5:13), 문자 그대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혼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다.¹⁰

이 견해에 따르면 피차 복종은 양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22-24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25-29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에도 불구하고 켈러 부부는 계속해서 남편의 머리 역할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아내와 피차 복종하는 남편이라는 표현에서,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에 복종하는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옮겨 감으로써 그렇게 합니다.¹¹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생각에서와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켈러 부부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아내의 복종으로 이해되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지합니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남편은]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지고 (그로써) 그 결정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권리가 있다.”¹² 다른 곳에서 팀 켈러는 이것을 남편이 “마지막 말”을 함으로써 아내의 반대를 “무효로 할” 권리라고 부릅니다.¹³ 다시 말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이 아닌 경우에만** 남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였던 저는 이 입장의 다른 많은 지지자처럼 이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따금, 아주 드문 경우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캘리포니아에서 영향력 있는 상호보완주의 목사인 제 친구 앨런 프로우(Alan Frow)는 자기 결혼에서 거의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내가 제게 ‘우리는 합의할 수 없어요. 당신이 지도자니까 가서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다섯 번뿐이었습니다.”¹⁴

제 결혼에서는 우리가 늘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제 “결정권”을 쓸 필요 없이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줄리에 대한 제 “지도적 역할”과 저에게 “복종”해야 할 줄리의 의무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경험 속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종 결정권 모델에 대한 의심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 저도 여러 해 동안 그중 하나였습니다 – 자기 입장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다듬는 어려운 작업이 수고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년 중 거의 매일 그들의 결혼 형태는 상호주의자들의 결혼과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온건한 형태의 권위와 복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켈러 부부의 견해를 더 오래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아직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는 심각한 우려를 다섯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아내의 복종을 이상으로 제시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이 하는 중요한 기여를 무시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아내의 복종이 모든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점을 이용해서 집에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 여성은 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¹⁵ 예를 들어 프로우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신비로운 거울”¹⁶이라고 아주 바르게 말합니다. 그는 여성이 사회에서 지도적인 일을 맡아도 된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이 신비로운 비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비약이 정당할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가리키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왜 이 “비밀”을 공동체 전체에 뭉뚱그려 옮겨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서 남성 장로들은 어떻게든 남편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따라서 남성이어야 하고), 교회의 나머지는 신부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이상하게도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되므로 비유에서 벗어납니다). 게다가

교회 장로들이 교회의 남편을 대표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역할은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교회의 비유를 더 밀고 나간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기껏해야 요한복음 3:29의 세례 요한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적인 결혼관에 따르면, 바울은 왜 하필 타락으로 비로소 생겨난 위계 질서를 이상으로 제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약속이 아니라 불길한 예고로 알려셨습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¹⁷

셋째,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입증된 대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볼 때마다 경악합니다. 일레인 스토키(Elaine Storkey) 같은 사회학자들은 여성의 복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편들이 자기 권위를 “인자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의 권위라는 생각은 때로 그들을 부추겨 “드러내 놓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남성의 특권과 권리를 믿게 한다. 그래서 남성은 자기 배우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자유와 지위와 의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¹⁸ 가장 거룩해진 부류의 남편이 아니라면, 그들은 배우자를 참으로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비록 조금일지라도 배우자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기 쉽습니다.¹⁹

제가 사는 아프리카에서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의 규모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저는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때리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심지어 자기 교회의 한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여성을 때리는 목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연구는²⁰ 여성의 복종에 관한 가르침이 학대받는 여성이 폭력적인 결혼 안에서 견디며 머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 그들이 도움을 구하는 교회들은 흔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과 헤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면 왜 그리스도인의 귀에 닿기만 하면 그렇게 자주 해를 끼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넷째, 저는 더 강경한 형태보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를 훨씬 더 낫게 여기지만, 이것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해석이 겨우 반세기쯤 되었다면, 그것은 상호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해석보다도 더 최근의 것입니다. 저는 켈러 부부 방식의 이 새롭고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에 감사하지만, 그루뎀과 러셀 무어(Russell Moore) 같은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 이 접근이 사실 상호보완주의 결혼보다는 상호주의 결혼에 더 가깝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냉정하게 해석했을 때 정기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고 아내가 제게 복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성경적”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부부 동반자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지지하고”, 결정이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려지는 결혼을 해 온 것입니다. 무어는 바로 이런 결혼을 “페미니즘적” 결혼이라고, 결코 “성경적” 결혼이나 상호보완주의적 결혼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²¹ 그루뎀이(그리고 역사적 견해가)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행동을 바꾸어 아내를 대신해 더 많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 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모순되게 계속 사는 것은 순전한 비일관성일 것입니다.

다섯째, “아내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답이 없습니다. 견해 1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수 세기 동안 그것은 완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문화와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며 따라서 여성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이런 생각은 문화에서도 교회에서도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결단력 있는 여성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 여성이 결정을 내리는 데 열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켈러 부부에게는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하나의 질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권위를 아버지께 내어 드리셨는가?’”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장과 6장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못 그립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에서도 아들이 아버지께 권위를 내어 드리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내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켜보는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평생 날마다 이끄는 견해 1에서만 통합니다. 견해 2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모습을 잘 보여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날마다의 인도에 동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때에만 이따금 예수님께 으름 패를 내놓으시게 하는 부드러운 공동 의사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켈러와 파이퍼 같은 신학자들은 신학적 근거를 대려고 애쓰지만, 흔히 더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목사는 남편의 권위를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머리가 둘인 것은 무엇이든 괴물이므로, 결국 누가 [책임이라는] 짐을 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언제나 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깨지기 때문일까요? 스포츠 팀에는 주장이, 군대에는 장군이, 기업에는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5가 말하듯이 이상적으로는 “벌거벗은” 채, 곧 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한 몸”의 결합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 지도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결혼에 관해 큰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의 책 *Love and Respect*는 이 논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등한 두 머리를 가진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²² 그러나 이 엉뚱한 주장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더 읽어 보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결혼한 그리스도인 여성과 이혼한 그리스도인 여성 21,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는 반대의 결과에 이릅니다. “한쪽 배우자가 결정을 내리는 부부는 – 그가 미리 상대 배우자와 의논하고 그 의견을 구한다 할지라도 – 결정권을 함께 나누는 부부보다 이혼할 확률이 7.4배 높다.”²³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학적 견해와 관계없이 이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수천 명의 응답자 가운데 약 40%는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믿었고, 약 60%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남편이 마지막 말을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부부는 17.3%에 불과합니다. 그와 달리 78.9%의 결혼은 최종 결정권 없이 돌아갑니다. 곧 부부가 함께 결정을 내리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결정을 미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 같은 목사들이 차라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확신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이 갈릴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대부분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믿지만, **이 믿음은 실천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부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친 것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할까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끄는 부부들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면, 몇 가지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이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며 자기 의견이 남편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혼할 확률은 26배 높다. ... 남편이 아내에게 의견을 묻는다 해도, 남편이 결정권을 가진 결혼에서는 정의상 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무게를 가진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의견이 남편의 의견과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결혼은 깨질 가능성이 더 높다.²⁴

반대로 결혼에서의 상호성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결정을 내리는 부부의 경우, 아내들은 자기 결혼을 가장 불행한 20%보다 가장 행복한 20%에 넣을 가능성이 네 배 이상 높다. 또한 성관계에서 자주 오르가슴을 경험할 가능성이 67% 더 높다.”²⁵ 이 조사 결과는 가장 좋은 결혼(그리고 성생활이 가장 좋은 결혼)이란 문제를 의식적으로 함께 풀고, 의견이 갈릴 때 합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결혼임을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열 명으로 이루어진 지도부의 책임자가 가끔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의사 결정 역학을 결혼에 옮겨 놓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두 사람은 기능적인 차원보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영혼의 공동체가 되기로 서약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합의에 이를 시간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대개는 결정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부는 그 분야에서 가장 확신이 강하거나 가장 전문 지식이 많은 배우자를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 의견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게는 가장 나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해질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내는 모두 기도하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상대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²⁶

제 경험은 저를 이런 결론으로 이끕니다. 아내가 저와 다른 의견을 낼 만큼 강하게 확신하는 바로 그때 제가 제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으름 패를 내라고 부탁한 다섯 번의 경우를 기억하는 앨런 프로우와 달리, 저는 줄리가 확신하지 못하는데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우를 단 한 번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경우에도 아내는 제 권위를 그저 받아들였다기보다 제 확신을 신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의 의견을 거슬러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가 아내에게서 강한 반대를 받은 경우가 그 밖에도 많이 기억납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마다 아내의 말을 들었고, 우리는 최종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내의 정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권위를 내세우려 했다면 저는 아내의 신뢰를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견해 2에 대해 심각한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목사와 친구로서 더 많은 부부와 동행할수록,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줄리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배우자에게서 어떻게 대우받도록 가르치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종 결정권자” 견해의 약점까지도 정면으로 바라보고 에베소서 5장의 다른 가능한 해석들에 마음을 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에베소서 5장 같은 어려운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며,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뿐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원래 누구에게 한 말인지 묻는 기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견해 3: 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

이 셋째 견해를 깊이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의 분명한 가르침을 피해 가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성경 본문을 해석으로 “비틀려는” 노력이 있다고 짐작하는 프로우에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 견해를 깊이 살펴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주석의 곡예가 아니라, 탄탄한 해석에 꼭 필요한 고되고 꼼꼼한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신학자 필립 페인(Philip Payne)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해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데, 그 관찰들은 바울이 실제로 동등함과 상호성을 결혼의 기초로 삼으려 했으며, 피상적으로 읽을 때 짐작하듯이 리더십과 복종을 기초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여 줍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피차 복종의 맥락에 둡니다. 페인에 따르면 “복종하다”(“다른 사람 아래 자신을 두다”라는 뜻)라는 단어를 “서로”(헬라어: ἀλλήλοις, *allelouis*)라는 상호적 표현과 결합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혁명적이고 언어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종하다”(헬라어: ὑποτάσσω, *hypotasso*)라는 단어는 대개 다른 사람의 권위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서로”와 결합함으로써 이 복종을 상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로써 그 뜻을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4: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4:32). 바울이 그 이유로 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5:21, ELB, 독일어 Elberfelder 성경)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고 묘사하는 이 장의 첫머리를 다시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5:2).

견해 1을 지지하는 강경한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합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과 케빈 드영(Kevin De Young)은 둘 다 상호적인 의미, 곧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아래"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루뎀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요한계시록 6:4)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뜻만 말하려 했다면, "서로"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영은 "서로"라는 표현이 쓰인²⁷ 다른 본문들을 가리키며, 거기에는 상호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본문들에도 분명히 상호성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서로"가 쓰인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복종을 한 방향으로만(아랫사람에게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로) 흐르게 하려는 그루뎀과 드영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조지 나이트(George Knight)와 톰 슈라이너(Tom Schreiner) 같은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조차 이 점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²⁸

둘째, 바울은 아내들에게 어떤 종류의 복종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복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랫사람이 권위에 대해, 예를 들어 시민이 정부에 대해 하는 **순종하는 복종**이 있습니다.²⁹ 다른 한편으로는 **섬기는 복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피차 복종을 말할 때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³⁰ 앞의 것은 일방적이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은 상호적일 수 있으며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종류의 복종을 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번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독일어] 성경이나 펴 보면 21절 끝에 마침표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 단락이 시작됩니다. 어떤 번역은 21절과 22절 사이에 아예 소제목을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삶의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SLT, 독일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 바꿈이나 끼워 넣은 소제목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립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21절과 22절 사이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실 – 이것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들에는 22절에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이 21절의 동사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³¹ 헬라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은 [빠진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남편들에게 ...". 다시 말해 바울이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신자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바로 그 같은 종류의 복종을 가리킵니다. 그는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둘째 종류의 복종 [섬기는 복종]을 가리킵니다. 곧 아내들이 남편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남편들에게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복종입니다. 그는 같은 문장 안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방식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남편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24절).³²

셋째, 이 경우 “머리”(헬라어: κεφαλή, *kephalē*)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 독일어에서 “머리”(Haupt)는 은유적으로 권위를 뜻합니다.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머리”이고, 지휘관은 부대의 “머리”입니다. 게다가 문자 그대로의 몸의 문자 그대로의 머리를 떠올릴 때, 우리 현대인은 뇌가 들어 있는 머리가 몸의 통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신경계를 통해 몸에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kephalē*라는 단어를 골랐을 때 무엇을 뜻했는지, 그리고 그의 첫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물어야 합니다.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머리가신 그리스도를 남편과 비교하며 남편의 권위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은유로 쓸 때 아마도 그런 의미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피조 세계에 대해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몸의 *kephalē*라고 부를 때는 대개 권위와 관련은 있지만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닌 무언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 보셔야 할 부록 3 「*kephalē*(머리)의 뜻」에서 저는 그루템의 주장과 달리 바울 시대에 이 단어가 보통 권위를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단어에 어떤 뜻을 담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가 이 단어를 결혼에 대한 비유의 일부로,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언어적 창작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머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번만 쓰입니다(여기와 고린도전서 11:3). 언어학자들은 두 경우 모두에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6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존귀한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는 입장을 논증합니다. 이 단어가 머리와 몸의 은유와 관련하여 쓰이는 곳은 에베소서 5장뿐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인 아내의 머리”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단서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줍니다! 23절의 원래 헬라어 문장 구조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번역에서 사라졌는데,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분 자신이 몸의 구주이시다.**” 헬라어에서는 바울이 “머리”로 무엇을 뜻하는지 드러냅니다. 이 세 개의 평행 표현은 바울이 “머리”를 “구주”와 같은 뜻으로 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바울이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려 했다면, 그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kyrios*(주), *exousia*(권위), *proestōtes*(이끌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 대신 그는 머리와 몸의 은유를 택하고, 그것을 자기 몸의 구주로서(이 경우에는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에 자기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만 담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머리 됨이 그의 돌봄과 섬김을 뜻한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돌봄과 섬김이라는 생각을 다시 발견합니다. 물론 바울이 또 다른 은유,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이라는 은유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조금 가려지기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자기 신부/자기 몸]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으니, 이는 그녀[자기 신부/자기 몸]를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뒤에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녀[자기 신부/자기 몸]를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의무가 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주께서 교회에 하시듯이 그것을 먹이고 돌본다.

보이십니까? 이 단락 전체에서 바울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에 무게를 둡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1-30절에서 이 세 겹의 은유(머리-몸, 남편-아내, 그리스도-교회)를 펼친 뒤에 또 하나의 층을 덧붙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의 하나 됨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놀라운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31-32절).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의 나머지는 비유로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맨 처음 결혼을 돌아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은유적인 “한 몸의 하나 됨”을 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보았듯이, 이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와 복종이 아니라 기쁨에 찬 친밀함과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머리와 몸의 은유로 명령 계통이 아니라 사랑의 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이끌라고가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신다는 에베소서 5장의 이 읽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통찰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단락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이끌라는 지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여기에도 없고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의미심장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에베소서 5장은 어쩌면 자기에게 복종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전혀 다루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은 생생한 은유들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서로 복종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아내들에게 분명히 “남편을 사랑하라”고 권합니다.³³ 그러나 아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교회들 안에 있던 그 많은 결혼에서 본 모습들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kephalē*, 곧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것이지,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아마도 고대에 아내들이 대개 더 어리고 교육을 덜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아이를 기르는 일에 매여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주는 경제적, 물질적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의존하는 아내를 *kephalē*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시대의 남편들이 오늘날 제가 아는 많은 남편과 비슷했다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아내들보다 배우자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³⁴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곧 남편을 겸손하게 섬기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편들에게 세 배나 많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라고 재촉함으로써 남편들의 이기심을 뒤흔드는 일에 나섭니다. 이것은 저에게 분명히 들어맞습니다. 제 결혼에서 성경과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 배우자를 희생적이고 겸손하게 섬기며 선을 행하도록 가장 많이 다그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줄리가 아니라 저입니다. 저는 제 친구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의 결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자기를 내어 주는 일에 앞장서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남편을 이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아내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사랑해야 하는 남편의 책임을 더 강하게 한다.”³⁵

33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끌라고가 아니라) 요구하고, 아내들에게는 특히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가 아니라)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여성도 존경받기를 원했고 대부분의 남편도 사랑을 바랐겠지만, 바울은 아마도 당시의 많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심리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견해 3, 곧 동등한 상대를 섬기는 남편이라는 견해를 설명하면서 저는 이 견해의 힘을 느낍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기를 바랍니다. 이 견해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날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그루뎀의 견해(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봅니다)나, 드문 상황에서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켈러 부부의 견해(저는 이것이 더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와 달리, 저는 이 견해가 좋고 아주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단락에서 실제로는 에베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어떤 종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려 했다면 어떨까요? 비록 그가 남편들에게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균형 있게 맞춘다 해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지위의 차이가 있는 신적인 결혼과 결혼을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부부 관계 안의 위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단락을 바르게 이해하기로 결심한 저는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들을 모두 이 과제에 적용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견해 4: 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로서의 남편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여러 부분이 우리에게 직접 쓰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때에만, 전혀 다른 상황이나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의미를 끌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본문, 아니 대부분의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첫 독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며, 그래서 이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우리 상황과 아주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차이(예를 들어 언어, 문화, 삶의 형편의 차이)라는 “강”으로 성경의 청중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강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맥락에서의 의미에서 곧바로 우리 자신의 맥락에서의 의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큰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흔히 우리 영적 조상들의 자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강이 넓어서 건너려면 긴 다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좁은 개울입니다. 본문에 담긴 원칙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다리를 놓기 전에, 우리는 강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합니다.³⁶

이 해석의 열쇠를 에베소서 5장 연구에 적용했을 때, 저는 제 잘못을,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 제가 읽은 글을 쓴 거의 모든 사람의 잘못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좁은 개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너려면 긴 다리가 필요한 넓은 강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부부들이 현대의 부부들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오늘날 우리의 결혼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우리 결혼과 뚜렷이 다른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의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정은 맞벌이 부모 두 사람, 아이 둘,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한 가정은 아내와 자녀들과 때로는 종들을 다스리는 한 남자, 곧 *paterfamilias*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정은 위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정을 꾸리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없을 때에만 여자가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군주정이다”³⁷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제가 앞 단락에서 자녀와 종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22-33의 남편-아내 관계는 바울이 다루는 세 관계 쌍 가운데 첫째입니다. 나머지 둘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부모-자녀(6:1-4)와 주인-종(6:5-9)입니다. 제가 전에 놓친 것은 바울이 남편, 아내, 자녀, 종의 위계로 이루어진 이 여러 층의 고대 가정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와 특권과 자유가 있었습니다.³⁸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수입의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자기를 대신해 행동하는 남자 없이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법적 또는 재정적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중해 사회에서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가 서른 살이었고, 여자는 열여덟 살이나 그보다 어렸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그는 대개 이미 세상 물정을 알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아직 소녀였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현관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대략 2년 또는 30개월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맨발에 임신한 채” 집에 있었습니다. 앞의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³⁹

대부분의 여성은 집안일 말고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전적으로 의존하는 처지였고, 한 남자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나 후견인, 나중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자녀와 종과 아내에게는 복종이 규범이었습니다. 이 맥락과 이 문화에서 *paterfamilias*는 다스려야 했지, 누구를 겸손하게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아랫사람들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paterfamilias*를 섬겨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남자는 본성상 여자보다 명령하기에 더 알맞다 ... 이 불평등은 영구적이다 ...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데서 드러나고, 여자의 용기는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⁴⁰

다음은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은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가정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통치 구조를 계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는 이런 형편을 다룰 뿐이며, 기존의 사회 구조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것을 당장 뒤엎으려 하지 않고도 더 낫게 만들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오늘날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는 좋은 선교사가 모두 그렇듯이, 바울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상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복음이 고대 가정을 만나다

여러분이 바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의 이 위계적으로 짜인 가정들에게 어떻게 조언했겠습니까? 바울이 당시의 맥락 속에서 에베소의 가정들에게 조언할 때 쓰는 세 가지 전략을 살펴봅시다.

첫째, 바울은 가정 안의 모든 관계를 복음의 표지 아래 둡니다. 그는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대하도록 이끌고, 모든 지시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 속에 담습니다.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 같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 하심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입니다. 그는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도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같은 방식으로 이끅니다. 느낌상 두 단어에 한 번꼴로 “그리스도”나 “주”가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 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표현으로 보도록 능숙하게 돕습니다.

둘째, 바울은 *paterfamilias*의 이기적이고 군림하는 태도를 분명히 꾸짖습니다. 가정 안의 역할을 정한 고대의 법전들은 *paterfamilias*에게 다스리라고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들의 무게 중심은 대개 자기 행동을 바로잡아야 하는 아랫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쳐 쓴 “법전”은 전에 없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 각각의 관계에서 남편/부모/주인에게(세 경우 모두 같은 남자가 관련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문화적 형편상 *paterfamilias*가 어차피 다스린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바울은 그에게 이제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분명 완전히 획기적인 요구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력을 가진 문화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가 잘되도록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바울은 복음을 사용하여 *paterfamilias*에 대한 아내와 자녀와 종의 복종을 누그러뜨리고 새롭게 정돈합니다.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그는 복음이 그들의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복종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아내에게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남편의 권위에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듯이 남편을 겸손하게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paterfamilias*를 날카롭게 바로잡고 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 아내와 자녀와 종 – 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을 무리 지어

끌어들였습니다. 이교도 비판자 켈수스(Celsus)는 2세기에 교회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기독교는 여자와 아이와 종을 위한 종교다.”⁴¹

가정 안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접근은 당시 문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옛 위계를 폐지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유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허물어 갑니다. 그 구조 전체를 복음 안에 끼워 넣을 뿐 아니라, 결국 그 구조가 복음 안에서 녹아 없어지게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고대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한 이교도 가운데 누구도 바울이 로마법을 허물러 하거나 단순히 평등주의적인 가정 구조를 도입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구속받은 *paterfamilias*에게서 눈여겨보았을 것은, 첫째로 그가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남다른 방식이었고, 둘째로 그의 아내와 자녀와 종들의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제한의 평등주의를 가르친다고 보는 견해 3과 달리, 이 견해는 바울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부를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 권위를 가진다는 문화적 규범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할 때, 그것은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paterfamilias*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도, 그것을 남편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서 아내에 대해 가져야 할 일종의 “역할”이나 지위로 규정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문화적 권력을 이상으로 제시하기는커녕, 복음으로 그것을 무디게 하려고 애씁니다.

존 파이퍼의 논증에 대한 반박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바울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는 남편과 아내의 리더십-복종을 분명히 이상으로 선언하고 그로써 영구화한다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구속받았으면서도 위계적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세상에 복음을 눈앞에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그리고 그것에 관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순응하고 의존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다. 남편이 자기 지도적 역할을 잃으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⁴²

그의 논증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가정 안의 노예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파이퍼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 주시려고 주인-종 관계를 만드셨다는 말이 됩니다.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바울은 실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에 복음을 적용합니다.

둘째, 복음을 보여 주는 것은 결혼 안의 위계가 아니라 그런 결혼의 구속입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위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으로 자기에게 맞추어 주며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아내를 남편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위계적인 결혼보다 상호성에 기초한 결혼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견해 3에서 설명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구주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으로 강조함으로써 *kephalē*라는 단어의 쓰임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교회 통치를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고 전제한다면, 어떤 위계적인 결혼도 결코 충분히 위계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지만, 남편은 결코 아내의 주인이 아닙니다.

파이퍼의 논증에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복음의 무언가를 비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호성에 기초한 결혼은 위계적으로 짜인 결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또 다른 것도 잘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영원하고 친밀한 결합입니다. 바울이 쓰는 머리와 몸의 비유, 곧 그가 “한 육체”라고 부르는 비유는 깊고 사랑에 찬 언약 관계와 살아 있는 유기적 결속을 가리킵니다. 지도자가 아랫사람들과 떨어진다는 생각은 그다지 낯설지 않지만, 머리가 몸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몹시 끔찍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지점

그루뎀은 800쪽에 이르는 책에서 결혼에서 아내의 복종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1세기의 결혼과 오늘날의 결혼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⁴³ 켈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자세한 연구에서 이 측면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며, 당시 결혼의 상황도 다루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은 넓은 강을 좁은 개울처럼 다룹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대의 가정 구조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른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복음을 적용합니다. 바울이 말을 건넨 것은 제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성인 여성이 남성만큼 교육을 받고, 자기 출산을 스스로 조절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남자가 그들 위에 있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종류의 결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 사이에 아주 넓은 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본문에 담긴 원칙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위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달리 묻자면, 바울은 더 이상 엄격하게 위계적이지 않고 평등주의적인 우리 사회의 오늘날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혼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 대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와 맺은 으뜸가는 관계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우리의 독립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보여 준 것 같은 친밀한 “한 몸”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자가 더 독립적이고 그래서 더 자기중심적이며,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쓴다고 전제한다면, 저 같은 남편들은 꼭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곧 그분의 신부를 눈부시게 꽃피우게 하는 그 사랑을 특별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의 맥락과 오늘 우리의 맥락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알게 된 지금, 저는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더 적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교육을 잘 받았으며, 어쩌면 둘 다 일하고 자녀 양육에

함께 힘쓰는 오늘날의 평균적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지도적 역할을 맡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집하고 싶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에서처럼 결혼에 대한 창조의 이상이 한 몸의 하나 됨, 곧 온전한 의미에서의 참된 동반자 관계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널리 퍼진 견해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다수의 견해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사도적 서한 *Mulieris Dignitatem*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가 “옛” 것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이 서한은 “그 시대의 관습과 종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것, “복음의 새로움”은 “복종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⁴⁴ 교리적으로 가장 유연하지 않은 교파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르침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직도 남자가 주도권을 쥐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마치 맞춥듯 보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들은 대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지적, 정치적, 재정적 권력을 가집니다. 이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우월한 권능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시듯이, 이 권력을 아내의 유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문화 속의 수많은 남편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여성과 아내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적 힘을 키우게 되고 남편과 동등한 동반자가 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 연구가 저를 이끈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결혼이 엄격하게 위계적으로 짜인 문화에 견해 4 – 구속받은 *paterfamilias* – 를 적용하면, 결국 그 문화들이 변하여 견해 3에 따른 결혼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온 나라들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결혼에 관한 성경 본문들로 연구를 넓혔더라면, 상호성에 기초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이끄는 아내들

구약에 언급된 모든 결혼이 가부장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것이 문화적 전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여겨볼 점은,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를 빼면 모세의 율법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부의 권력 역학을 보여 주는 작은 장면들을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을 이끄는 모습을 거듭 발견합니다. 제 삶의 많은 갈림길에서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귀를 하늘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네 아내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⁴⁵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아내들이 하나님께 먼저 듣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부적절하던 문화에서, 한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이를 낳으리라고 알립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남편을 부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그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낯선 사람이 가부장적 규범을 어긴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는지,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이니까?”⁴⁶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중요한 탄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천 년도 더 지나서 한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같은 소식을 알립니다.⁴⁷ 그 남편에게는 나중해야 알립니다.⁴⁸ 두 장면 모두에서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듣고, 남자는 나중해야 최신 정보를, 곧 아내가 이미 아는 정보를 얻습니다. “창조 질서” 같은 것이 있다 해도(실제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자기 집에 맞아들인 수넬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늘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소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⁴⁹ 이번에도 남편은 곧바로 아내의 말을 따르고, 이 일에서 아내의 영적 분별력을 본능적으로 신뢰합니다.

짧게 한마디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kephalē*”라는 말을 “남편이 가정의 영적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각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기도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에 초대하고, 부부나 가족이 어느 교회에 다닐지 정해야 한다고 적어 둔 메모가 있다면 버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족의 영적 안녕을 위해 결정적으로 나서는 것을 꺾아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사람 모두**, 곧 남편과 아내가 함께 – 한 팀으로서 그리고 각자로서 – 하나님을 구하고, 교회를 골라 그 교인이 되며, 다른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남편이 나머지 가족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의 목회 지도팀을 이루라고 권합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 살면서도 가부장적 규범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아주 부유한 그녀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⁵⁰ 쫓기며 굶주린 다윗과 그의 무리가 나발에게 먹을 것을 조금 청하자, 나발은 무정하게 그들을 조롱하며 그 청을 거절합니다. 깊이 모욕을 느끼고 분노한 다윗은 나발과 그의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솔직히 그다지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윗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지 않음으로써 피 흘림을 막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을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가서, 상처 입은 그의 자존심을 능숙하게 다독이며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⁵¹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강조하면서도 다윗의 더 나은 면에 호소하며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기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나발에게 자기가 그의 지시를 뒤집었으며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고 말하자, 그의 심장이 힘을 잃고, 그는 열흘 뒤에 죽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셋째 아내로 데려오려고 사람들을 보내자, 그녀는 몸을 굽혀 말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참 기막힌 이야기이지만, 그녀가 나발과 다윗을 모두 자기 “주”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다는 암시가 이 이야기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두 남자 모두 이 칭호를 서슴없이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 여인이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심지어 “남성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것을 칭찬하며 부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다른, 더 공정한 문화에서라면 아마도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한 여인의 예를 봅니다. 다윗은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쓸데없는 피 흘림을 즉시 막아 낸 그녀의 전략적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외교술에도 감탄합니다.

결론: 구약의 이야기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규범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상호주의 결혼

솔로몬의 아가는 성경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하고 낭만적이며 성적인 결합의 내적 역학을 다루는 가장 긴 단락입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위-복종 관계가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낭만과 성에서 두 사람 모두 먼저 다가가고, 두 사람 모두 맞추어 주며, 두 사람 모두 주고, 두 사람 모두 받습니다. 이 시적인 책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 누린 벌거벗은 기쁨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신약에도 그와 짝을 이루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 서신에서 결혼을 다루는 단락 가운데 단연 가장 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성, 섬김, 헤어짐에 관한 지침을 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이고 사랑에 찬 동반자 관계 말고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암시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은 성경에서 결혼 안의 권위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위해 정하신 서로의 사랑과 상호적 권위를 강조하는 몇 구절⁵²을 골라 보겠습니다.

[각]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2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마땅히 줄 애정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할지니라 (3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4절).

합의에 따라 얼마 동안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로 물리치지 말라 (5절).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 (10-11절).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2-13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14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15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6절).

그러나 네가 [남자로서]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28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나니 (32, 34b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나니 (33-34a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리처드 헤이스 (Richard Hays)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 1세기 독자들에게 놀랍게 들렸을 것이다.” “부부는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좋을 대로 하는 자율적인 단위도 아니다. 오히려 결혼은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속하는 피차 복종의 관계다.”⁵³

처음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고르는 법을 상담해 줄 때, 저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저는 방금 이 주제에 관한 신약의 유일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39절).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며, 그것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부가 중요한 결정을 – 예를 들어 언제 성관계를 갖고 언제 함께 하나님을 구할지를 –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말하는 신약 전체의 유일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합의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로 물리치지 말라”(5절).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결정하려고 마음을 쓰면, 남편이 명령을 내리거나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7장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위도 말합니다.** 이 장은 결혼에서 남녀의 동등함과 함께, 결정의 기초로서 피차 복종과 합의를 장려합니다.

성령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7장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난 상호보완주의 저자들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7장을 짧게만 언급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해석과 실제로 모순된다는 점은 가려 버리거나⁵⁴, 아니면 – 이 경우가 더 흔한데 – 이 본문을 그냥 무시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⁵⁵

그렇다면 어느 견해를 택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의 해석에 관한 이 장을 마치면서,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 결혼과 교회에서 우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견해 1(결정권자로서의 남편)을 거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곧 억압적인 신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견해 2(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남편)는 줄리와 제 결혼에서 여러 해 동안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주었고,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견해 3과 4가 주석적으로 더 낫다는 점과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을 더 폭넓게 읽은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이 견해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까요?

어쩌면 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견해 3(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은 상호성에 기초한 결혼을 지지하고, 견해 4(구속받은 *paterfamilias*로서의 남편)는 그런 결혼에 반대하지 않으며, 여전히 강하게 가부장적인 문화 속의 결혼과 교회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견해 4는 첫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했을 법한 대로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견해 3은, 특히 더 평등한 문화에 사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을 적용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언은 이것입니다. 부부는 에덴동산의 사랑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한 몸”의 결속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정할 때에는 서로 따져 보고 동의함으로써 이 하나 됨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길에서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참된 남녀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남아 있는 의심은 어떻게 다룰까요? 다음 장에서는 결혼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룹니다.



사람에게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들은] 한때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우리에게 부여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아내에 대한 권위를 계속 붙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권력과 권력에 대한 요구를 내려놓고,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그 대가로 더 친밀한 부부 관계를 거둘 것인가?”

피터 데이비즈(Peter Davids)⁵⁶

게이트 재단(Gates Foundation)은 최근 대규모 국제 연구를 후원했는데, 그 연구는 여성이 언론에서 심각하게 과소 대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영국에서 분석된 온라인 뉴스 가운데 여성이 인용된 것은 29%에 불과했다. 인도에서는 겨우 14%였다.”⁵⁷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놀라운 진전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을 “보고” “들으려는” 경향이 훨씬 약합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제가 아무 도전도 받지 않던 이전 수천 년 동안, 사회적 환경은 여성이 공적인 직분에 오르는 것을 얼마나 더 가로막았겠습니까? 고고학자 이언 모리스(Ian Morris)는 고대 아테네에 여성이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가 왜 그토록 적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와 노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나 스며 있던 남성 시민 문화” 때문인데, 그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여자들이 사는 공간까지 통제했고”, 그 결과 여자들은 당시 문화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굴물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⁵⁸

초대 교회가 퍼져 나간 더 넓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여성의 형편은 그리 낫지 않았습니다. 드문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⁵⁹ 존중받는 여성은 공적인 지도자 역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서 명예를 찾았습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가장 흔한 여성 등장인물은 여자 노예와 창녀였는데, 이 연극들이 "삶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존경받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들은 집에 머물며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 역할"을 맡은 여성이 적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공적인 삶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공적인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은 숨겨진 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여성 가운데 그 은사를 인정받고 계발하여 공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⁶⁰

신약 성경에서 남성 지도자들의 아내는 왜 그렇게 드물게 언급될까요? 그리스도인 부부의 동등함, 동반자 관계, 공동의 지위를 강조하는 현대적 관점은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조차 집안일과 자녀 양육이 아내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왜 남성에 비해 여성 인물이 그렇게 적은지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을 부인하는 일부 비평가들은 오늘날 이것이 성경이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남성만 맡도록 정해진 독특하고 탁월한 역할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적 권위와 성경이 다루는 수많은 역사적 상황을 함께 이해하는 더 나은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특정한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 맞추셨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을 자동으로 이상화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해석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성경 시대에 여성이 여러 방식으로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는 관찰로부터, 여성이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의 일부로서 모든 곳에서 언제나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건너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맞추심, 바르게 이해하기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상적인 사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은 한때 홍수로 하셨던 것처럼 무너진 사회를 그냥 심판하시기보다, 그 사회 안에서 구속하는 일을 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당분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성령의 생수가 [기존의] 사회적 지형 위로 흘러, 굽이치는 강처럼 만나는 지형의 윤곽에 맞추어 흐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는 물줄기처럼 지형을 바꾸어 놓고, 마침내 굽은 길을 곧게 만든다."⁶¹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당시 문화의 가부장제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안 되는 본문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추시는 예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사도들은 그분의 본을 따릅니다. 그들은 아직 돌과 잡초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립니다. 지금 우리는 두 시대가 겹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사회 체제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이 체제들을 완전히 밀어낼 것이지만, 당분간은 그 체제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게 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오직 남성만 성경을 기록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정하셨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히브리서를 브리스길라가 (결에 아굴라와 함께) 썼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신학자들을 분명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고대에 **글쓰기 교육을 받은 여성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오직 남성만 (또는 브리스길라가 붓을 들었다면 적어도 대부분 남성이) 성경의 책들을 썼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읽고 쓸 수 있는 **Shalom**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지금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내의 복종에 관하여 더 살펴보기

고대에 여성의 사회적 상황은 오늘날보다 훨씬 나빴습니다(물론 우리에게도 아직 갈 길이 멍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대받았고, 권력과 공적인 직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주목했고, 여자들은 아주 좁은 가정의 영역에 갇혀 노예나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항하는 여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어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나라의 귀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같은 때에 그의 아내 와스디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여인들의 잔치를 엽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로 마음이 즐거워진” 아하수어로는 아름다운 아내에게 그녀의 잔치를 떠나 와서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와스디가 오기를 거절하자, 아내의 불순종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왕은 화가 나서 지혜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폐하고,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 안의 다른 여자들이 그녀의 본을 따라 남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모두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 남성은 공적인 직분에서 이끌고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가부장제는 타락의 산물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사도들도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와 비슷하게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본문 밖에서도 1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는 사도들의 권면은 한결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⁶²라고 쓰고, 디도에게는 “젊은 여자들을 ...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⁶³고 씁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⁶⁴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언뜻 보기에 전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는 이 잘못된 가정이 이 본문들에 대한 피상적이고 잘못된 읽기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 결론을 반박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아도 에베소서 5장에서와 다른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는 두 편지에 모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에서 일종의 “잘라 붙이기” 방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선 구절들은 두 본문에서 거의 같습니다. 두 본문은 다음 표현들을 같은 순서로 사용합니다. “서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항상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차이는 골로새서의 두 절짜리 단락이 에베소서의 열세 절에 이르는 단락의 축약본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골로새서의 간결한 표현을 확장하여 그 뜻을 밝혀 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본문, 디도서 2:3-5와 베드로전서 3:1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들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내린다는 데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⁶⁵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 규범을 따르던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준 목회적 권면이며, 그런 것으로서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지키려는 이해할 만한 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 규범

“아내들아, 복종하라”는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 내면, 우리는 그 구절들을 증거 본문으로 쓸 위험에 빠집니다. 이 구절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이 들어 있는 더 큰 단락, 곧 문학적 문맥을 살펴봅시다.

	아내 – 남편 / 여자 – 남자	자녀 – 부모	노예 – 주인
에베소서	5:21-33	6:1-4	6:5-9
골로새서	3:18-19	3:20-21	3:22-4:1
베드로전서	3:1-7	언급 없음	2:18-25
디도서	2:1-8	언급 없음	2:9-10
디모데전서	5:1-16	언급 없음	6:1-3

문학적 문맥을 분석할 때 우리 눈에 무엇이 띄습니까? 우선, 아내의 복종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이른바 “가정 규범”의 일부입니다. 가정 규범은 남편, 아내, 자녀, 노예로 이루어진 가정 안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전 가르침을 따라, 로마법에서는 가정이 나이 든 남자의 다스림 아래 질서 지워져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없으면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대의 가정 규범은 내림차순으로 정해진 위계를 따랐습니다. 가장, 그다음 아내, 그다음 자녀와 노예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역사 동안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어야 할, 문맥과 무관한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특정한 상황, 곧 로마 사회의 규정에 따라 질서 지워진 고대의 평범한 가정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들 가운데 어디에서도 남편에게 이끌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사도들은 남성의 지도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들이 이 명령으로 이루고자 한 것은 남편의 지도를 누그러뜨리고 아내의 낮은 지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의 지도를 그저 참아 내는 대신 복음으로 힘을 얻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복종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이 모든 본문에서 – 그리고 이것이 이 장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요구는 주인에 대한 노예의 복종 요구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곳에서는 이 평행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도 적용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의 평행은 매번 나타납니다.

노예제와 가부장제 사이의 이 평행으로는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짚어 두고 싶은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노예제도, 결혼 안에서 아내의 복종도 이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하듯이, 함께 일하는 교회들이 **때로는 이상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16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여종 하갈이 자기를 학대하던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쳤을 때입니다. 하갈을 구하시고 힘을 주신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⁶⁶ 우리 가운데 누가 이것을 보고,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가 그녀를 향한 그분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뜻의 표현이었다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조언은 그녀가 이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분명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는 광야로 도망치는 것보다 사래에게 굴복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한,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결혼한 제 아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대에 2년간 징집되었습니다. 집에는 갓 태어난 아이와 젊은 아내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이것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감옥이었습니다. 때로 목사는 교인들에게 민주적인 선거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따라서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설교는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식 가정 질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⁶⁷

좋은 평판에 대한 염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 말고도, 베드로와 바울은 왜 아내와 노예에게 각각 남편과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권하고, 남편과 주인에게는 각각 아내와 노예를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고 지시할까요? 대부분의 본문에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지켜보는 세상의 눈에 신생 교회들의 신뢰성과 전도의 매력을 지키는 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여성과 노예가 *paterfamilias*에게 순종하는 것이 엄연한 로마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드로는 노예와 아내들에게 말하기 직전에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권하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⁶⁸

-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⁶⁹
- 바울은 그레데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⁷⁰
- 바울은 그레데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⁷¹
- 바울은 에베소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⁷²
-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자신의 모든 지시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⁷³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도, 고난 속에서 씨름하며 자주 박해받는 작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들에 부정적인 관심을 쏠리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에베소서는 외부인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쓴 “내부” 문서입니다(그래서 평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이 세 편지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생긴 문제, 곧 교회가 외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신시아 웨스트폴(Cynthia Westfall)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고, 그 안에서 성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함으로써 남편의 “주인”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위계 전체와 후견 제도에 대한 파괴적인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런 관습을 어기는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교회들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여성의 행동은 초대 교회와 다른 종교 집단을 논쟁적으로 공격할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⁷⁴

노예와 아내가 법적으로 *paterfamilias*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던 세상에서, 이 아내들과 노예들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자기 삶을 자발적으로 각각 남편과 주인에게 복종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도들은 *paterfamilias*가 그리스도인인 경우, 자기 집안 식구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방법에 관해 그에게도 그에 맞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결혼 안의 성별 위계를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맞추어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첫 줄에서 장차 올 완성된 사회에 사는 신자들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권을 살아가면서도,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그네입니다. 고대의 가정 규범을 고려하면, 이 본문들은 교회가 문화적 규범에 공공연히 맞서 반항하지 않으면서도 그 규범을 넘어서도록 권면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불완전한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둘 구실을 무엇이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전이든 이 작은 교회들에 수사와 박해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베드로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뒤 불과 몇 년 만에 그 저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들아, 복종하라 ... 아내들아, 이와 같이 복종하라”

디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권면을 받고(2:3-5), 곧이어 노예들도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2:9).

베드로는 바울의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그다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18에서 노예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 아니라 부당한 주인에게도 깊은 존경으로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3:1에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는 단어 선택을 통해 이 지시들 사이의 연관을 더욱 강조합니다. “종들아 ... 복종하라 ... 아내들아 이와 같이 ... 복종하라!”

이제 이 장의 핵심 논증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는 지시를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복종해야 한다는 평행된 지시는, 노예제를 뒤로한 우리 현대인들이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무도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되므로, 이 깨달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노예제 폐지에 맞선 그리스도인들의 저항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식에 이끌린 그리스도인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1833년에 먼저 영국에서 제도로서의 노예제를 극복했고, 이후 노예 해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나라로도 퍼져 나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존 웨슬리(John Wesley), 존 뉴턴(John Newton), 찰스 피니(Charles Finney), 그림케 자매(Grimké), 해리엇 스토클(Harriet Stowe),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 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노예제라는 제도에 승리에 찬, 지속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회 변화를 이끈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즐겨 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잊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들이 남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Southern Baptists)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1845년에 북침례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노예제가 성경적이라고 믿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 대브니(Robert Dabney)와 J. H. 손웰(J. H. Thornwell) 같은 미국의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들은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성경적 논증을 내놓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Charles Hodge)는 *The Bible Argument on Slavery* [노예제에 관한 성경적 논증]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고, 거기서 다음과 같이 논증했습니다.⁷⁵

-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세우셨다. 노아의 아들 함에게 종이 되라는 판결을 내리심으로써⁷⁶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제를 세우셨다.
-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승인하셨다. 아브라함, 다윗, 욥조차 노예를 소유했다.

- 모세의 율법은 노예제를 뒷받침했다. 예를 들어 십계명 가운데 넷째와 열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유대인과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을 허용했다.⁷⁷
- 예수께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승인하셨음이 틀림없다.
- 사도들은 노예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노예제를 정죄하지 않고 규율했다.
- 사도들은 노예제를 사용하여 복음의 긍정적인 한 측면을 설명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우리가 속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소수의 신학자들이 다수 신학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1845년 나홀간 열린 토론에서 노예제 폐지론자 조너선 블랜처드(Jonathan Blanchard)는 “성경의 일반 원리”와 “성경 전체의 폭”을 살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의 원리가 공의와 의로움”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거의 무엇이든 입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더 높은 진리와 모순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부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좋게 여기신다고 굳게 확신한 나머지, 노예제를 유지할 권리를 지키려고 5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간 내전에서 무기를 들 각오까지 했습니다! 내전이 미국 남부의 인종주의를 끝낸 것은 아니었지만, 한때 노예를 소유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낮추어 마침내 노예제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감에 이끌린 거스를 수 없는 문화적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들은 거기서 느리지만 분명하게 자기 행동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신학자가, 한때 수많은 “성경적” 논증이 있었음에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은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으며 노예제라는 관행은 죄라고 믿습니다.

노예제와 가부장제 비교

이제 노예제와 가부장제, 곧 남성이 이끌어야 한다는, 문명 속에서 예로부터 널리 퍼져 있던 가정 사이의 평행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상호보완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비슷한 논증의 사슬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보십시오.⁷⁸

- 하나님께서 남성의 권위를 세우셨다.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삼으셨다.
- 하나님께서 남성의 권위를 승인하셨다. 여족장이 아니라 족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 여왕이 아니라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한다.
- 모세의 율법은 남성의 권위를 뒷받침했다. 열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나 나귀나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한다.
- 예수께서는 남편의 권위에 반대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승인하셨음이 틀림없다.
- 사도들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가부장제를 정죄하지 않고 규율했다.

- 사도들은 남편의 권위를 사용하여 복음의 긍정적인 한 측면을 나타냈다. 그 안에서 남편은 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했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다.

노예제와 가부장제를 성경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사이에 있는, 눈에 띄고 정신이 번쩍 드는 평행이 보이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조차 이제는 “아내들아, 복종하라”는 본문과 “종들아, 복종하라”는 본문 사이의 평행을 인정합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는 에베소서 6장의 바울의 글을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을 결혼 안에서 아내의 복종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⁷⁹

사과와 배?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이 유사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지 나이트(George Knight)는 “아내들아, 복종하라”는 본문과 “종들아, 복종하라”는 본문이 서로 매우 다르다고, 곧 “사과와 배” 처럼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 샘 스톰스(Sam Storms)의 글⁸⁰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우리가 노예제를 정죄하면서도 동시에 아내의 복종을 지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항목별로 인용하되 기울임꼴과 따옴표로 표시하고, 각 논증에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를 영구적인 이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태복음 19:8; 고린도전서 6:1-8 참조). 바울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지시를 통해 노예제가 좋은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스톰스도 하나님께서 사회 구조에 맞추어 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아내가 *paterfamilias*에게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세워야 하는 논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규율합니다.

둘째, “노예 제도는 창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에서 비롯된 왜곡이다. 반면 결혼과 남성의 우위는 타락 이전에 있던 본래 창조된 질서의 일부이다.”

여기서 스톰스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못 이해하고, 창세기 3:16에 따르면 창조가 아니라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을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 곳에서 노예제 폐지의 씨앗이 뿌려진다. 빌레몬서 16절, 에베소서 6:9를 보라. 그러나 신약 성경의 어떤 것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같은 일이 의도되었음을 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28,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 특히 피차 복종에 관한 그 가르침은 결혼 안에서 남성 지배를 “해체할 씨앗”이 분명히 됩니다.

넷째, “노예제 논증을 사용하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무효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도 무효로 만들지 않겠는가? 바울이 에베소서 5-6장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라.”

스톰스는 잘못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는 “순종”해야 하고, 아내와 노예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와 노예를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묶어 줍니다. 스톰스는 또한 그 문화의 부모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구절을 오늘날 서구의 우리와 똑같이 읽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고집하겠습니까? 1세기 독자는 에베소서 6장을, 바울이 성인 자녀에게까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⁸¹

그러나 설령 당시의 부모-자녀 관계가 오늘날과 같았다고 해도(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의 성별에 따른 위계는 부모-자녀 관계 안의 세대에 따른 위계와 매우 다릅니다. 어린 자녀는 삶과 삶의 지혜에 대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의존과 순종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주의적인 문화에서조차 그것이 지켜집니다. 교육받은 두 성인 사이의 결혼에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의 목표는 자녀를 의존과 순종 너머로 이끌어, 마침내 그들이 자기 가정의 머리로 서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31에서 암시하듯이).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권을 그 자녀의 평생에 걸쳐 주장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해야 합니까?

다섯째, “노예들에게 준 바울의 지시에는 노예제와 관련하여 영구적인 도덕적 명령이나 절대적인 도덕 원리가 언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스톰스는 첫째 요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스톰스는 무슨 근거로 앞의 것은 영구적인 도덕적 명령이 아니고 뒤의 것은 그렇다고 확신합니까? 그의 관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노예가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 두고 그것을 권한다(고린도전서 7:21).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그들의 복종에 관해서는 그와 비슷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제와 달리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몸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⁸² 노예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람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동이라는 제도의 구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의 구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쓸 때 바울의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규범에 맞서는 혁명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그 문화 안에서 가능한 한 동등한 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지 나이트와 샘 스톰스의 주장과 달리, 노예제와 가부장제가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결코 사과와 배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타락한 나무에서 난 썩은 열매입니다. 노예제는 원리상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도라는 생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표현이 호의적이든 잔인하든, 두 관행 모두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한편으로는 –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듯이 – “호의적인” 노예제까지 정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호의적인” 가부장제의 보루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노예제를 없애는 것이라면, 복음은 같은 일격으로 가부장제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클라리스 마틴(Clarice Marti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글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흑인 남성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노예에 관해 설교하고 글을 쓸 때는 자유주의적 해석학을 적용하면서, 여성에 관해서는 문자적 해석학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⁸³

지난날의 불의에서 얻는 교훈

노예제와 가부장제의 유사성을 부인함으로써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미국 남부의 노예제 폐지 반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학적 통찰을 신뢰하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교회에 부끄러운 처지로 몰아넣으며, 그렇게 해서 자기 교인 일부를 낮게 보는 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 지배의 옹호자들이 **남침례교인들**, 곧 미국 교회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속한 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신학자들과 매체를 통해 자기 생각을 계속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게오르크 헤겔(Georg Hegel)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노예제 폐지에 반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에서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성경 전체의 본문을 담은 방대한 “학문적” 저작들을 통해 하나의 확신에 이를 수 있지만 – 교단 전체와 신학 학파 전체가 그런 경우처럼 – 그럼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발전은 실제로 수천 년에 걸쳐 그 문화 속에 뿌리내린 그리스도인의 원리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28에 있는 바울의 “인류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는 역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동등함이라는 생각과 사회적 위계의 종말을 그토록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노예제와 남성 지배가 철폐된 것은 실제로 이 구절에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회 속에서 복음이 끼친 영향을 막아 내거나 심지어 공격하는 대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발견과 진보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성경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이 평평하다거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을 때, 교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그것을 반박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고 처음부터 성경에 있던 것을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산업 혁명과 훗날의 여성 인권 운동의 첫 물결이 서구를 휩쓸었을 때, 여성들은 처음으로 남성에 견줄 만한 지성과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쳐 왔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새롭게 살펴볼 기회입니다.

넷째, 흔한 해석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의 개별 부분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 해석된 “증거 본문”들을 모아 놓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의 책들은 우리를 **위하여** 쓰였지만 **우리에게**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끌어내어 그것을 우리 시대와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깊이 익혀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이익과 **집단 사고**는 우리가 성경을 매우 편향되게 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6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지위나 특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노예를 소유한 신학자들이 19세기의 신학 논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도록 허락되었어야 했을까요? 상호보완주의적인 교회와 사역 기관과 대학에서 목사나 지도자나 교수로서 자기 일자리와 평판을 잃게 될 사람들이 오늘날 이 문제에서 주도적인 목소리가 되어도 될까요?

여섯째, 성경을 해석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보는 교회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문화에 순응했다”거나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낮게 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나머지가 이미 버린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신뢰성에 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가 계속 가부장제의 보루로 남는 것은 계속 성경을 사용해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파괴적입니다. 문화와 교회가 노예제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대체로 합의하고, 교회가 심지어 그 가장 온건한 형태를 칭찬하던 수 세기 동안에는, 거기에 동조해도 교회의 평판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한 현대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경적 근거로 이 관행에 동의한 노예 두 명을 돕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표현한 문화적 확신에 동의하던 동안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여자는 약하고 수동적이어야 한다. 한쪽은 힘과 의지를 모두 가져야 하고, 다른 쪽은 조금만 저항하면 충분하다.”⁸⁴ 그때는 교회가 가부장제에 동조해도 교회의 평판에 그리 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The Handmaid's Tale* 같은 수상 경력이 있는 텔레비전 시리즈조차 여성 복종의 “공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우리가 딸들에게 남편의 일방적인 권위 아래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가르침과 리더십의 자질을 가진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교회는 노예를 둔 그 가상의 현대 가정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⁸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성의 동등함을 가정 너머 교회와 사회로까지 넓힌다면, 우리는 결혼을 더 조화롭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복음의 신뢰성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잊었지만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존엄을 부여하는 우리 복음이 서서히 끼쳐 온 영향과, 사랑 많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상호보완주의적 제한을 알지 못하셨고, 여성들이 자기 은사를 온전히 펼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성들을 힘 있게 이끌고 가르칠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주

1. Richard Hays, *First Corinthians*, 116쪽
2. 결혼에서 권위와 복종이 적용된다 해도, 그것이 아내가 다른 영역에서 남편에 대해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랍비들의 아내 드보라는 자기가 살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집에서는 남편의 지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성공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남편조차 그녀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모순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내가 결혼에서

복종한다는 것을 그녀가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로 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작은 예로, 저는 서유럽의 N. T. 라이트(N. T. Wright), 동유럽의 하이크 호바니시안(Hayk Hovhannisyan), 그리고 한때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이클 버드(Michael Bird)에게서 일점 상호보완주의의 의미에 맞는 견해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평등주의와 상호보완주의 사이의 "전쟁"에 깊이 얽힌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N. T.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의 일부는, 특히 미국에서는, 문화가 너무 양극화되어 많은 사람이 한 칸에 표시하면 같은 쪽에 있는 다른 열두 칸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데 있다. 그쪽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고 문화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다." 어떤 것을 충분히 자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밤하늘의 별 두 개를 가리키며 "이 두 별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별들은 '지시별'이라는 별자리를 이룹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 별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을 상상합니다. 그는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별들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실 이 별들은 서로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개의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 안의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에만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남편의 머리 뒀과 장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 둘이 반드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4. 베스 앨리슨 바(Beth Allison Barr)는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6장)에서 *Happily Ever After*를 인용합니다.
5. 그런데 이름난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 잘못하여 바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스 코스텐버거(Andreas Köstenberger)는 *God, Marriage, and Family*(250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27과 2:24를 모두 인용하심으로써(마태복음 19:4-6과 병행 구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에 대해 세우신 계획을 확증하셨다. 이로써 우리 주님은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복종하며 돕는 동반자라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단호하고 힘 있게 확인하셨다."
6.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1장
7. John Piper,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장
8. Ed and Gaye Wheat, *Intended for Pleasure*, 제4판, 30-31쪽
9. Kevin Leman, *Sheet Music*, 54쪽.
10.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2장
11.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6장
12.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부록
13. Timothy Keller, The Timothy Keller Sermon Archive, 2012-2013
14. 들어 보기: www.bit.ly/2ZPRZGH
15. 존 파이프(John Piper)는 이 논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집에서 이끄는 것과 비슷하게 남자들이 이끌어야 한다(에베소서 5:22-33)." 흥미롭게도 제가 사는 대륙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게 설교와 교회 리더십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여성 설교자들과 여성 목사들은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교인들이 그들의 지도적 역할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6. 들어 보기: www.bit.ly/2ZPRZGH
17. 창세기 3:16
18. Elaine Storkey, *Scars across humanity: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Violence Against Women*, 210쪽
19. 생각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개념들이 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 상호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그것은 분명 가정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 다음을 보십시오: www.ab.co/3bHZF05 및 www.bit.ly/3GNbrVt
21. www.bit.ly/3nVy1CK
22. Eggerichs, *Love & Respect*, 221쪽. 그는 연구나 다른 외부 근거를 대지 않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23.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2장. 가트맨 연구소의 한 연구도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존 가트맨(John Gottman)은 책 "Die sieben Prinzipien für eine glückliche Ehe"(『행복한 결혼을 위한 일곱 가지 원칙』)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이 아내와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으면 결혼이 실패할 확률은 81%"라고 씁니다.
24.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2장.
25.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2장.

26.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앨런 프로우(Alan Frow)는 “최종 결정권자” 모델 [tiebreaking]을 옹호하면서, 목사로서 평등주의적 결혼을 상담할 때 “누가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그 근거를 댁니다.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bit.ly/2ZPRZGH.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일반적으로 맞을까요? 제 결혼 경험과 제가 상담한 부부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면, 합의하지 못할 때 남편의 권위가 작동한다는 아내의 생각이 실제로는 결혼에 엄청난 긴장을 불러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상담가는 갈등이 많은 그리스도인 결혼의 긴장을 다루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남편이라는 결정 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부부는 서로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서로 사랑하며, 상대를 위해 자기 계획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최종 결정권에 복종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그럼에도 그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 어떤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데 남편은 똑같이 열정적으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 결정을 내려 버리는 아내의 처지에 제가 서 본다면, 최종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남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하지 말라].”
27. 마태복음 24:10; 누가복음 12:1; 고린도전서 7:5; 11:33
28. 상호보완주의자들의 또 다른 논증은 이렇습니다. 피차 복종(에베소서 5:21)이 세 관계 쌍(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둘째와 셋째 관계 쌍은 본질적으로 위계적이므로 바울이 결혼에서 리더십과 복종의 개념을 무너뜨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 5:21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세 쌍 모두를 아우르는 틀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 바울이 특별히 부부 관계에 적용하는 그의 편지의 새 단락으로 넘어가는 연결 구절일 뿐입니다. 이것은 슈라이너와 나이트 같은 상호보완주의자들의 접근보다 훨씬 더 나은 접근입니다. 그들은 피차 복종이라는 생각을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내는 순응하는 아내라는 자기 역할에 복종하고, 남편은 희생하는 지도자라는 자기 역할에 복종한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바꾸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자기 역할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29. 로마서 13:1
30. “hypotassō에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이 단어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의 복종 모두에 알맞다. 첫째 경우에는 위계 안에 객관적인 서열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시민 정부의 권위 아래 있으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 경우에는 서열이 주관적이다. 신자들은 마치 위계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어야 한다. 곧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본질이다(로마서 12:10; 빌립보서 2:3).”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36쪽)
31. 신시아 웨스트폴(Cynthia Westfall)은 *Paul and Gender*(1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5:18-23은 헬라어로 한 문장을 이루며,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주는 지시는 – 22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됨으로써 – 문법적으로 21절의 피차 복종에 의존한다.”
32.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 곧 “순종하다”를 택함으로써 편지 안에서 “복종하다”의 이 의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3. 디도서 2:4
34. 남편이 아내보다 더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on.today.com/3CKRIsD
35. *Men and Women in Christ*, 64쪽
36. Duvall and Hays, *Grasping God's Word*, 13장.
37. Aristoteles, *Politik*, 1255b.
38. 저는 또한 “그리스와 로마 환경 모두에서 종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말은 무엇보다 자유인, 특히 종을 거느린 가정을 이끄는 사회 계층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66쪽)
39. David Scholer,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0권, 1987년 12월, 416쪽. www.bit.ly/3bDKpI9
40. Aristoteles, *Politik*, 1259a.
41. 켈수스는 2세기에 살았던 이교도 비판자였습니다. 이 인용문은 로스 셰퍼드 크레이머(Ross Shepherd Kraemer)의 *Her Share of the Blessings*(128쪽)에서 가져왔습니다.
42. John Piper, *This Momentary Marriage*, 6–8장 참조
43. 그루뎀은 “paterfamilias”라는 용어를 7장 각주 102에서 단 한 번 씁니다. 거기서 다른 저자가 가정에서 가장 나이 많은 구성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4. Johannes Paul II., *Mulieris Dignitatem*, 88쪽.

45. 창세기 21:12
46. 사사기 13:10-11
47. 누가복음 1:26-38
48. 마태복음 1:18-21
49. 열왕기하 4:8-10
50. 사무엘상 25:3
51. 사무엘상 25:25
52. 원래 인용문은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가져왔습니다.
53. Richard Hays, *First Corinthians*, 116쪽.
54. 예를 들어 그루데의 대표작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복음주의 페미니즘과 성경의 진리』]는 평등주의적 논증들을 반박하려고 쓴 책이며, 고린도전서 7장이 동등한 결혼을 가르친다는 논증도 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800쪽 가운데 단 한 쪽을 차지하는 아주 짧은 단락(6.7)에서 그루데는 고린도전서 7장이 남편의 권위 있는 리더십을 규율할 뿐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는 이 단락이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위계적 해석의 적용을 규율할 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의 해석 자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논증은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오해의 여지 없이 밝히는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본문은 – 이 사실에는 모든 해석자가 동의합니다 – 일부 해석자만이 남편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준다고 주장하는 본문(에베소서 5장)을 해석할 때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55. 예를 들어 톰 슈라이너(Tom Schreiner)는 –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이 *Men and Women in Christ*(18–19쪽)에서 지적하듯이 – 필립 페인(Philip Payne)의 2009년 책 *Man and Woman: One in Christ*에 대한 응답으로 자세한 요약과 반박을 시도합니다. 페인이 고린도전서 7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데도, 이상하게도 슈라이너는 이 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 *God's Good Design: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Men and Women* [『하나님의 좋은 설계: 성경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정말로 말하는 것』]을 펴낸 클레어 스미스(Claire Smith)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밝힌 목표는 결혼의 가장 좋은 모델을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 카슨(Don Carson)과 다른 이들이 열렬히 추천하며, 많은 사람이 그 완전함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에 관한 그녀의 다섯 장 가운데 어느 장도 고린도전서 7장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저자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당한 맹점이 있으며 “확증 편향”의 징후가 있다고 봅니다. 확증 편향이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선입견을 뒷받침하려고만 성경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56.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238쪽에서 인용
57. 출처: www.gates.ly/3bMqqQZ
58. 출처: Sandra Joshel, Sheila Murnaghan, *Women and Slaves in Greco-Roman Culture*, 217–20쪽. Barr,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226쪽)에서 재인용
59. Susan Hylen, *Women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를 보십시오.
60. 사회적 조건이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부유한 지역에서 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현대의 한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를지(그래서 그가 그들을 이끌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도 노예가 장로였던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61.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39쪽
62. 골로새서 3:18
63. 디도서 2:5
64. 베드로전서 3:1
65. 제 책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3:1-7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의 책 *Men and Wom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남자와 여자] 6장을 추천합니다. 그 장의 제목은 “Submission and Honour: 1 Peter”(복종과 존귀: 베드로전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틀릿은, 베드로가 피차 복종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문화의 위계적 질서를 허무는 데 있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걷는 길과 본질적으로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3:1-6에서 문화적으로 기대되던 아내의 복종하는 역할을 뒤엎지도,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동기로 그 역할을 고쳐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얻으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베드로도 문화적으로 기대되던 그리스도인 남편의 권위적 역할을 이상화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3:7에서 세 가지 면으로 고쳐

습니다. 1)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이것이 많은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 놓치는 듯한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곧 앞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신자들이 자기 하나님과 왕에게(2:13),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2:18-25),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처형한 자들에게(2:21), 그리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포함하여(3:1-6) 행한 방식, 다시 말해 겸손한 복종입니다. 2) 남편들은 아내의 더 연약한 힘을 배려하며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3)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로마 문화와 달리) 종속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등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다”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모든 신자가 황제에게 보여야 할 복종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2:13(“권세에] 복종하라”)과 2:17(“왕을 존대하라”)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정확히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겸손하고 공경하는 섬김이라는 의미에서)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베드로는 에베소서 5장의 바울처럼, 결혼 안의 복종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권위에 대한 단순한 순종에서 겸손한 섬김과 선의에 대한 헌신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이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것이 어떤 사회 구조 안에 있든지 양방향으로 흐르는 겸손한 섬김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내가 복종해야 할 이유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다면, 이것은 그것을 언급하기에 완벽한 문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라고 지시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66. 창세기 16:9

67. 덧붙여 말하자면,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가정 질서와 군주제 정부 형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사회가 지금까지 발견한 정부 체제 가운데 아마 가장 좋은 체제일 것입니다.

68. 베드로전서 2:15

69. 베드로전서 3:1-2

70. 디도서 2:5

71. 디도서 2:10

72. 디모데전서 6:1

73. 디모데전서 5:7, 14

74. 출처: www.bit.ly/3EL7OgM

75. 이 단락은 케빈 자일스(Kevin Giles)의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8장에 빛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6. 창세기 9:20-27

77. 레위기 25:39-41; 25:44-46

78. 이 단락은 케빈 자일스(Kevin Giles)의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8장에 빛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Mulieris Dignitatem*, 24쪽. Barr, 110쪽에서 재인용.

80. 출처: www.bit.ly/2ZXK1LY

81.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본질적인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달랐다. 현대 세계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언젠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전제한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서는 성인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188쪽.)

82. 제인 후커(Jane Hooker)는 또 하나의 논증을 내놓는데, 저는 그것을 스톨스의 목록에 덧붙이겠습니다. “성경 시대의 노예제 관행과 최근 미국의 노예제 관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출처: www.bit.ly/3GNFnk9). 이로써 그녀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노예제를 끝내려 한 사회 운동은 이해할 만하지만 1세기의 노예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도 노예는 잔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갑니다. 두 경우 모두 노예제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노예에 대한 나쁜 대우만이 아니라 그 온건한 형태들까지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83. Cain Felder (편), *Stony the Road we Trod*, 226쪽. Barr, 6장에서 재인용.

84. Jean-Jacques Rousseau, *Emil oder Über die Erziehung*(『에밀』, 1762). Barr, 6장에서 재인용

85. 존 스탭하우스(John Stackhouse)는 *Finally Feminist*(56쪽)에서 이를 더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신약의 맥락에서 그러했고 우리 시대의 현대 사회를 제외한 세계 모든 곳에서 그러하듯이 사회가 가부장적이었을 때, 교회는 그것에 맞춤으로써 추문을 피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평등주의적인 지금, 추문은 교회가 사회와 함께 가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자의적인 성별의 경계 없이 자기 은사와 소명에

따라 섬기게 하는 전례 없는 자유를 기뻐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추문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과 ... 이미 회심한 이들이 교회에 머물고 성장하는 일을 모두 가로막는다. ... 이 사회에서 교회들이 가부장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 걸림돌이 된다.”